

법헌 스님의
만다라&수행

천수천안관자재보살



통상 천수관음이라 한다. 관음보살의 서원은 자비를 목표로 하지만, 천수천안관자재보살은 천의 손과, 천의 눈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존으로서 자비의 궁극인 대비를 덕으로 삼는다.

형상: 황금색, 27면은 25유(지옥에서 무색계까지 중생의 윤회의 세계의 25종)를 제도하는 것을 말하고, 정상의 중앙을 본지라하여 아미타불을 배치하고 있다.

천수에 천안을 갖추고 있으며, 이 중에 42수를 강조하였으며, 좌, 우수의 지물은 필자의 42수주 진언집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우수의 지물은 다음과 같다. 청연, 바루, 포도, 범협, 삼고저, 보인, 석장, 시원인, 수주, 호병, 화살, 오색운, 검, 백연, 촉루, 거울, 달, 갈고리, 화불.

좌수의 지물은 다음과 같다. 홍연, 경협, 보주, 소라, 독고저, 요령, 삼고저, 팔찌, 끈(밧줄),조병, 활, 방패, 도끼, 자색연화, 버들, 백자, 바뀌, 해, 궁전.



보리수아래의
부처님 품안에서
⑱ 뇌성마비 장애인 김소영

"장애, 동정·극복대상 개념 경계해야"

코스모스를 닮은 소영 씨 오늘은 무엇을 하고 지냈나요? 근래 들어 절에는 다녀왔나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 못했을 수도 있겠군요. 법회는 모두 온라인 법회를 하니 온라인으로 법회 참석을 하고 있다고 짐작을 해봅니다.

가을이 왔으니 시도 좀 쓰셨을까요? 자립생활센터에서 퇴근하는 길에 소영 씨를 닮은 맑은 시 한 편 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혹여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프게 할까 싶어 언제나 말 한마디 조심스레 하고, 단어 하나 신중하게 쓰는 소영 씨는 마음이 참 예쁩니다. 그것은 소영 씨의 멋진 삶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장애가 있는 우리에게 문학이란 무엇일까요? 또한 문학이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문학이란 자기 체험에서 오는 메시지가 담겼다고 하지요. 장애가 있는 작가는 치열한 자기 삶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의 장애를 말하고, 장애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해요. 비장애작가도 장애를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작품에서 장애가 동정이나 극복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장애를 어설프게 다룬 작품들이 오히려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문학이나 음악이나 연극 모든 분야에서 그렇고 모든 생활에서 그렇지요.

사람들은 흔히 문학에서도 장애문학을 구분하곤 합니다. 무엇이 장애인 문학인지 정의를 내리지 못한 채 말이지요. 장애인 문학의 역할과 일반 문학의 역할은 따로 있지 않아요. 결국 문학은 사람을 탐구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기에, 장애인 문학은 타인을 이해하고, 인간을 탐구하는 데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들의 문학이 세상에 선보일 통로가 좁은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불교계도 장애인들의 활동 공간이 적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따로 필요하다는 사실 역시 따지고 보면 허물어야 할 벽일지도 모르겠어요. 문학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구석구석에서 필요하니까요.

장애는 눈으로 보이는 특성일 뿐이지 보호와 분리의 구분 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장애와 비장애 학생 구분 없이 통합교육이 진행되는 것처럼, 불교에서도 변화를 발원합니다. 장애인 불자를 위한 포교와 지원에 성숙한 장애인식이 고취되어 자연스럽게 장애인의 불교접근권이 좋아져서 불자의 일원으로 널리 함께할 수 있다면 장애불자들의 더욱 활동도 넓어지고 자신의 재능을 통해 발전할 수 있을거예요.

장애불자, 비장애불자, 스님 등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해요. 특히 우리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요.

부처님오신날 보리수아래공연에서 시낭송하는 소영 씨의 사진을 찾아봅니다. 부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길 모습인가 생각합니다. 보리수아래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현행원을 가슴에 담고 사는데 지금도 보현행원을 불러봅니다. 간절한 마음이죠.

보리수아래 장애인들의 능력을 키우고 비불자 장애인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시작한 보리수아래 감성시집과 수필집이 벌써 7권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시아 장애인들과의 교류도 미얀마 베트남, 일본 인도네시아 4개국이 되었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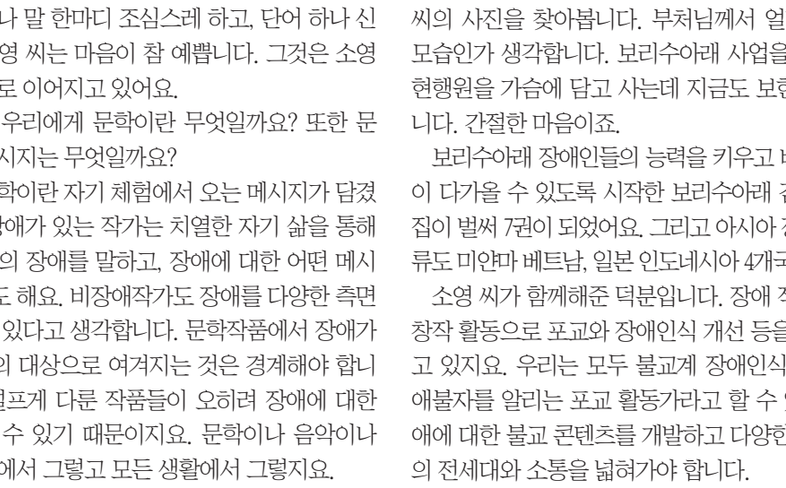
소영 씨가 함께해준 덕분입니다. 장애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 활동으로 포교와 장애인식 개선 등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지요. 우리는 모두 불교계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장애불자를 알리는 포교 활동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장애에 대한 불교 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불교의 전세대와 소통을 넓혀가야 합니다.

불자들 중에는 장애인들을 무조건 이해해야 한다는 맘을 가진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참 감사한 일이면서도 때로 장애불자들이 제대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게도 합니다.

그래서 불교계 곳곳에서 장애불자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장애불자들이 자신들의 불교를 바탕으로 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환경적 장애물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고 정책 차원의 불교계 노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불교계 전반의 편의시설 설치 등 보편적 접근은 장애 불자뿐 아니라 모든 불자에게도 편리하고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해요.

코스모스 한 송이 한 송이가 모여 코스모스 꽃길을 만들 듯 소영 씨와 그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손잡고 나가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소영 씨, 어느 햇살 좋은 날 시 한 편 쓰면 저도 보여주세요. 깊어가는 가을 건강하고 편안하세요.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뇌성마비 장애인인 시인 김소영 씨.

일일시호일

복막염 반복에 수차례 생사기로…
가족걱정에 눈물

캄보디아 출신 찬디라씨 장천공으로 4차례 수술…위험 고비 넘겨
체중 40kg대로 줄어…기약 없는 치료에 병원비는 3000만원 훌쩍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